

Case Report / 증례

少陽人 荊防導赤散으로 치료한 지루성피부염 4례

이희경 · 임장우 · 양대진
하늘마음한의원

Four Cases of Seborrheic Dermatitis Patients Treated with Soyangin *Hyeongbangdojok-san*

Hee-Kyoung Lee · Jang-Woo Lim · Dae-Jin Yang
Hanulmaum Korean Medical Clinic

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port the effectiveness of *Hyeongbangdojok-san* on 4 seborrheic dermatitis patients who were diagnosed as Soyangin.

Methods : 4 seborrheic dermatitis patients were treated by *Hyeongbangdojok-san*. The effect of treatment was measured by EASI score, VAS score, photographs.

Results : EASI score and VAS score decreased as a result of *Hyeongbangdojok-san* treatment in 4 patients.

Conclusions : These case-studies showed an efficient result of using *Hyeongbangdojok-san* in the seborrheic dermatitis of Soyangin. And an author consider that continuous clinical study will be needed in Korean medical dermatology.

Key words : Seborrheic Dermatitis;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Soyangin; *Hyeongbangdojok-san*

1. 서 론

지루성피부염은 피지선이 활발히 분포하는 두부와 상체를 침범하는 건성 혹은 기름기가 있는 인설상의 표재성 습진이 특징인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¹⁾. 유아부터 성인까지 두루 발생할 수 있는 흔한 피부질환으로 진단에 어려움은 없다. 병변은 황갈색의 인설과 가피로 덮여있으며 가벼운 홍반에서 심한 홍피증까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²⁾.

최소한 전 인구의 2~5%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생후 3개월 이내와 30~60세 사이에 발생빈도가 높다. 유아에서는 성별사이에 차이가 없으나 성인에서는 남성에게 흔하며 지성피부와 관련이 있다¹⁾. 하지만 최근 들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불규칙한 식습관과 수면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늘면서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환자층이 두터워지고 있는 추세이다³⁾.

지루성피부염의 병인은 피지의 과다분비, 진균의 과증식, 신경전달물질의 대사이상, 표피증식의 이상, 신경이완제나 비소금시메티딘과 같은 약물 및 영양장애, 온도와 습도에 따른 계절적 영향 등 증상만큼이나 다양한 가설이 제시되고 있지만 확실히 밝혀져 있지 않다⁴⁾.

서양의학에서는 지루성 피부염 치료에 Zinc Pyrithione이나 Azoles, Ciclopirox 등 항진균제를 도포하거나 복용한다. 그 외에 Corticosteroid나 국소 칼시뉴린억제제 및 각질을 용해하는 약물이 사용되고 있다⁵⁾. 하지만 아직 항진균제의 지루성피부염에 대한 치료기전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며²⁾, Corticosteroid와 같은 약제들이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대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아직 근거가 미미하다. 이에 지루성피부염에 대한 한의학적 접근 및 치료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

해 서양의학에서 이루어진 지루성피부염의 최신 연구 성과와 함께 한의학계의 연구방향을 제시한 차 등⁵⁾의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

한의학적으로 지루성피부염은 白屑風, 面遊風과 가장 유사하다. 발진의 특성에 따라 乾性形과 濕性形, 玫瑰糠疹形으로 나누고, 病因病理를 風熱血燥, 胃腸濕熱로 구별하여 養血祛風潤燥, 清熱化濕通腑하여 치료한다⁶⁾.

지루성피부염을 이 등³⁾은 柴胡清肝湯加減方을, 김 등⁷⁾은 黃蓮解毒湯加減方을, 배 등⁸⁾은 消風散合清肌滲濕湯을, 황보 등⁹⁾은 消風散合清上防風湯을 복용하여 양호한 효과를 얻었다는 보고가 있다. 한약 복용 외에 김 등¹⁰⁾의 連翹金銀花 추출물 외치액 사용, 홍¹¹⁾의 黃蓮解毒湯 약침치료의 병행을 통한 치험례가 보고되었다.

사상의학은 조선후기 이제마가 창시한 의학 이론으로 人稟臟理의 특성에 따라 太陽人, 少陽人, 太陰人, 少陰人 네 개 체질로 구분하여 체질적 차이를 감안하여 동일한 병이라도 다른 치료방법을 적용한다. 이 중 少陽人은 陽化되기 쉬운 체질로 火와 熱의 병증이 잘 나타난다¹²⁾. 지루성피부염의 호발부위인 두면부위는 인체의 上部에 해당하며, 주요증상인 홍반과 소양감, 열감은 인체에서 陽, 表部에 나타나는 火熱의 증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지루성피부염이 있는 경우 타인에게 가장 많이 노출되어지는 부위인 안면부에 증상이 있어 체간이나 상하지에 피부증상이 있는 사람에 비해 증상의 악화와 호전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성과 심리상태에 따라 피부증상의 변동이 큰 점으로 미루어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고려하여 少陽人 脾受寒表寒病 結胸證으로 진단된 환자에게 少陽人 荊防導赤散을 처방하여 치료한 치험례에서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연구대상 및 치료방법

1. 연구대상

Corresponding author : Jang-woo Lim, Hanulmaum Korean Medical Clinic, 210-11, Ssangyong-dong, Seobuk-gu, Cheonan-si, Chungcheongnam-do, Korea.
(Tel: 041-577-7582, e-mail: ijwoo72@nate.com)
• Recieved 2016/7/11 • Revised 2016/8/9 • Accepted 2016/8/16

2013년 6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하늘마 음한의원 천안점에 내원한 지루성피부염 환자 중에서 少陽人으로 진단하고 치료기간동안 少陽人 荊防導赤散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이와 함께 식이 및 생활습 관 관리를 병행하여 3개월 이상 치료받은 환자 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평가방법

1) 호전 정도를 수치화하기 위해 the 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EASI)를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EASI는 아토피피부염의 평가방법으로 습진의 면적과 증증도를 함께 평가해 수치화 한다. 정상 피부면적에 대한 습진 피부의 비율을 0점부터 6점 까지 매긴 Area Score와 습진의 증증도를 0점부터 3점까지 매긴 Severity Score의 곱으로 표현하는데 Severity Score의 본래 평가 항목인 홍반(Redness), 피부두께(Thickness), 상처(Scratching), 태선화(Lichenification) 대신에 지루성피부염의 대표 증상인 홍반 및 발적과 인설을 평가 항목으로 정하였다. 홍반 및 발적과 인설 각각의 Severity Score를 합한 값에 Area Score를 곱하였다(Table 1, 2). 진료자의 시각 및 촉각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로 2~6주 단위로 사진기록을 남겨두었다.

2) 소양감, 건조감, 따가움 등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자각증상에 대하여 Visual Analog Scale(VAS)를 사용하였다. 0점부터 10점까지로 정도를 평가하였는데, 0점은 증상이 없는 상태이고 10점은 증상이 가장 심한상태를 의미한다.

3. 치료방법

1) 침구치료

Stainless steel needles(0.25 × 30mm)을 사용하여 양측의 LI4(合谷), LR3(太衝), SI3(後谿), ST25(天樞)

와 CV12(中脘) 9혈을 直刺하였다.

2) 약물치료

少陽人 脾受寒表寒病 結胸證으로 진단한 4명에게 荊防導赤散을 투약하였다(Table 3).

Table 1. Area Score of 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EASI)

Area Score	Percentage of Skin Affected by Eczema in Each Region
0	0: no eczema in this region
1	1-9%
2	10-29%
3	30-49%
4	50-69%
5	70-89%
6	90-100%: the entire region is affected by eczema

Table 2. Severity Score of 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EASI)

Severity Score	Intensity of Redness, Thickness, Scratching, Lichenification
0	None, absent
1	Mild
2	Moderate
3	Severe

Table 3. Composition of Soyangin Hyeongbangdojok-san (52g)

Herbal name	Scientific name	Dose (g)
生地黃	Rehmannia glutinosa var. purpurea	12
木通	Akebia quinata	8
玄蔘	Scrophularia oldhami	6
瓜蒌仁	Trichosanthes kirilowii	6
前胡	Anthriscus aemula	4
羌活	Ostericum praeteritum	4
獨活	Aralia continentalis	4
荊芥	Schizonepeta tenuifolia	4
防風	Ledebouriella seseloides	4

Table 3의 약재구성 52g을 1첩으로 하여 20첩 분량인 1040g을 100분간 전탕한 후 상온에서 냉각하고, 1포당 100cc씩 60포로 포장하였다. 하루 2회, 식후 30분, 30일 복용을 기본 처방 단위로 하며, 치료 종결까지 지속 복용 시켰다.

3) 식이 및 생활지도

한의학에서는 肥甘厚味나 辛辣酒類를 과식해서 腸胃의 濕熱이 쌓이는 것을 지루성피부염의 대표병리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소화하기 힘든 기름진 음식이나 육류, 지나치게 매운 음식은 피하고 과일과 야채, 정제되지 않은 곡물 위주의 식사를 하도록 지도하였다.

또한 지루성피부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 스트레스와 지나치게 뜨겁거나 차가운 외부환경과의 접촉을 피하고, 가급적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을 하도록 권고하였다.

III. 증례

본보고의 증례는 모두 환자에게 사진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해 미리 동의를 구하였다.

1. 증례1

- 1) 성명 : 김○○
- 2) 성별/나이 : F/19
- 3) 초진일 : 2013년 6월 26일
- 4) 주요증상 : 안면부 발적, 인설, 구진, 소양감
- 5) 과거력 : 없음

6) 현병력 : 4년 전 얼굴에 처음으로 증상이 나타나 피부과에서 습진으로 진단받고 락티손크림을 4년간 매일 1회 이상 사용하였다. 안면부 전체가 붉고 거칠었으며 미간과 양볼, 턱에는 구진성 여드름이 동반되었다. 자각증상으로 가려움이 심했으며, 특히 아침, 저녁으로 뚜렷하였다.

7) 치료기간 : 2013년 6월 26일 ~ 2013년 11월 22일

8) 치료경과 : 총 150일의 치료기간동안 전반적으로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간혹 치킨, 닭도리탕 등 육류 섭취 후 전신 두드러기 및 기존 발진의 악화를 보인 사례에 속한다. 2014년 2월 3일에 follow up 해본결과 증상이 호전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Table 4, Fig. 1, 2).

2. 증례2

- 1) 성명 : 강○○
- 2) 성별/나이 : F/34
- 3) 초진일 : 2013년 10월 31일
- 4) 주요증상 : 안면부 홍반, 기름기 있는 인설, 소양감
- 5) 과거력 : B형 간염 보균
- 6) 현병력 : 약 5개월 전 안면부의 오돌토돌한 구진이 처음 나타난 뒤 약 1개월 전 증상이 악화되어 안면부 전체가 붉고, 얇은 각질이 일어나며 양쪽 턱에는 작은 구진이 1~2cm 간격으로 분포하였다. 피부과 연고는 사용하지 않고 스테로이

Table 4. Changes of Visual Analog Scale(VAS) Score and 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EASI) Score in Case 1

Date	6/26	7/25	8/12	9/12	10/14	11/8	11/22
VAS Score	10	9	8	3	4	2	0
EASI Score	18	15	12	4	10	8	0

드를 내복약으로 복용하고 있었으나, 1달 전부터 약을 복용해도 호전이 없었다. 평소 육류를 주 2회 이상 즐겨 먹고, 피자, 햄버거, 라면과 같은 인스턴트식품을 자주 먹었다.

- 7) 치료기간 : 2013년 10월 31일 ~ 2014년 2월 11일
- 8) 치료경과 : 총 104일간의 치료기간 중 처음 2주간 스테로이드 복용 중단 후의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겪으면서 증상이 악화되었다가 호전된 사례에 속한다. 2014년 3월 10일부터 2014년 9월 19일까지 1~2달 간격으로 follow up 해본결과 호전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Table 5, Fig. 3, 4).

3. 증례3

- 1) 성명 : 정○○
- 2) 성별/나이 : F/42
- 3) 초진일 : 2014년 2월 17일
- 4) 주요증상 : 안면부와 목에 넓은 홍반, 각질, 진물, 소양감

Table 5. Changes of Visual Analog Scale(VAS) Score and 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EASI) Score in Case 2

Date	11/7	12/2	1/10	2/11
VAS Score	10	5	2	0
EASI Score	24	10	2	0

Table 6. Changes of Visual Analog Scale(VAS) Score and 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EASI) Score in Case 3

Date		2/17	3/6	3/31	4/19	5/15	6/10	7/19
VAS Score		10	10	10	8	6	3	0
EASI Score	Head and Neck	20	15	20	12	6	2	1
	Trunk	-	3	8	9	9	2	0

- 5) 과거력 : 없음
- 6) 현병력 : 1년 4개월 전 입주위에서 증상이 처음 나타난 뒤 2달간 피부과 연고 사용하다가 중단한 후 현재까지 약 1년간 다른 한의원 치료(한약 3달 복용, 침)를 받고 있으나 호전이 더디다고 하였다. 입 주위와 목 앞면에 넓게 뚜렷한 붉은 발진에 각질이 일어났으며, 피부가 건조해서균열이 생긴 부위에 진물도 뚜렷했다. 왼쪽 눈꺼풀에는 홍반, 각질과 함께 부종도 동반되었다. 가려움증이 밤중에 극심하여 수면상에도 호소하였다.
- 7) 치료기간 : 2014년 2월 17일 ~ 2014년 7월 19일
- 8) 총 153일의 치료기간 동안 처음 내원 후부터 2014년 3월 말까지 증상이 계속 악화되어 얼굴과 목 앞에만 국한되어 있던 증상이 양볼, 코 주변, 귓바퀴, 어깨, 쇄골 하부까지 넓어지고 홍반과 진물이 더 심해졌다. 이후 4월부터 증상이 호전되어 7월경 발진이 완전히 사라졌다. 2014년 9월 6일부터 2015년 1월 5일까지 1-2달 간격으로 follow up 해본결과 호전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Table 6, Fig. 5-7).

4. 증례4

- 1) 성명 : 배○○○
- 2) 성별/나이 : M/19
- 3) 초진일 : 2014년 6월 2일

- 4) 주요증상 : 얼굴, 가슴, 두피의 홍반, 각질, 구진성 여드름
- 5) 과거력 : 없음
- 6) 현병력 : 4년 전 얼굴과 두피에 홍반, 가려움어 처음 나타나 발병 1년 후 피부과에서 3~4개월 치료하다가 중단한 후로 다른 관리나 치료를 하지 않았다. 초기 발병에서 1년 뒤 악화되어 가슴까지 증상이 넓어졌다. 내원시 눈썹과 코 주변부

로 홍반과 각질이 가장 뚜렷하였고, 턱과 눈 외자 주변, 목, 흉부에는 면포성, 농포성 여드름이 있었다. 최근 대학생이 된 후로 주 3~4회 소주 2~3병씩 음주 횟수와 회당 음주량이 많았다. 또한 육와 인스턴트, 빵, 면류 등의 밀가루 음식을 거의 매일 먹었다.

- 7) 치료기간 : 2014년 6월 2일 ~ 2014년 10월 7일



Fig. 1. Case 1 on 2013.6.26



Fig. 2. Case 1 on 2013.1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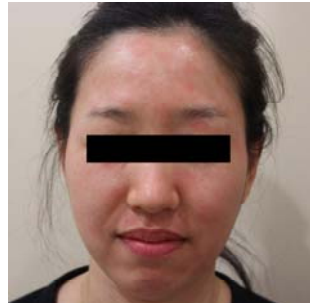


Fig. 3. Case 2 on 2013.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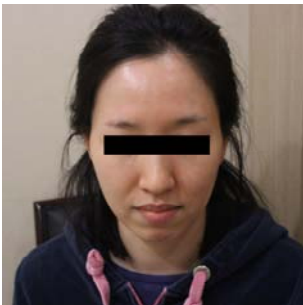


Fig. 4. Case 2 on 2014.2.11



Fig. 5. Case 3 on 2014.2.17



Fig. 6. Case 3 on 2014.3.31



Fig. 7. Case 3 on 2014.7.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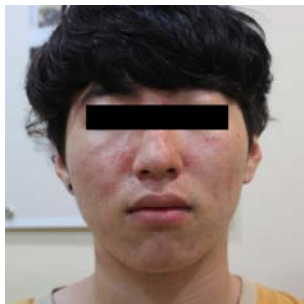


Fig. 8. Case 4 on 2014.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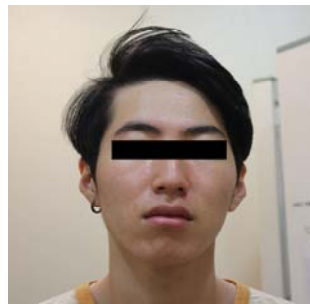


Fig. 9. Case 4 on 2014.10.17

Table 7. Changes of Visual Analog Scale(VAS) Score and 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EASI) Score in Case 4

Date		6/2	7/10	8/11	9/11	10/7
VAS Score		10	3	3	2	0
EASI Score	Head and Neck	15	6	6	4	1
	Trunk	6	6	3	2	1

8) 총 128일의 치료기간 동안 여드름이 먼저 호전되고 흉반과 각질로 점차 호전되었다. 2015년 1월 30일 follow up 해본결과 증상이 호전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다(Table 7, Fig. 8, 9).

IV. 고 찰

지루성피부염은 피지선의 활동이 증가된 부위에 발생하는 만성 습진성 피부염이다. 건성 혹은 기름기가 있는 인설이 특징이며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분홍색 또는 황색반을 형성하며 호전과 악화를 되풀이하고 약간의 소양감을 동반한다. 주로 얼굴과 두피에 잘 나타나는데 얼굴에서는 눈썹, 미간, 협부, 코 등에 나타나고, 그 외에 흉골부, 액와부, 유방하부, 배꼽, 서혜부, 둔부사이 주름부위에도 호발한다. 증상이 심할 경우 두꺼운 가피를 형성하여 건선양 발진처럼 보이기도 하고, 장액성 삼출액과 부종이 발생하기도 한다.

병인은 아직 확실하지 않으며 여러 가설이 제시되고 있다. 피지선의 발달된 부위에 발생하는 것으로 피지 과다분비와의 연관성이 제시되었으나 피지선의 분비가 20대에 가장 왕성하며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므로 나이가 증가하면서 지루성피부염이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현상을 설명하기는 어렵다⁴⁾. 또 정상인의 피부에 비해 지루성피부염 환자의 피부에 친지질효모인 *Pityrosporum Ovale*의 숫자가 증가되어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진균과의 연관성은 꾸준히 제시되고 있지만, 지루성피부염이 없는 경우에도 두피에 진균이 많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논란이 있다. 세포

증식 억제물질을 투여하면 증상이 호전되는 것으로 표피증식이상과의 관련성 또한 제시되고 있으며, 파킨슨병, 간질, 척수공동증과 같은 신경계 장애 환자에서 호발하며 당뇨병 등 내분비질환이나 알코올중독자에서도 지루성피부염이 호발한다고 알려져 있다²⁾.

두피의 지루성피부염 치료에 항 지루성 샴푸를 사용한다. 항진균작용을 하는 Selenium Sulfide, Zinc Pyrithione이 효과가 좋다. 그 외에도 각질이 서로 엉켜있는 것을 푸는 살리실산-설퍼, 합성항생제 성분을 함유한 Chloroxine등의 샴푸가 있다. 병변이 광범위하거나 염증이 심한 경우 스테로이드 용액이나 로션, 스프레이를 외용한다. 다른 부위에 생긴 지루성피부염은 스테로이드크림을 매일 1~3회 도포한다. 하지만 고효능의 불화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도포하면 모세혈관 확장, 주사, 여드름, 피부위축을 일으키게 되므로 주의해야 하며, 특히 눈 주위에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경우 안압이 높아질 위험이 있다⁴⁾. 상기의 서양의학적 치료방법들은 모두 증상경감에 목적이 있는 대증요법이라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부작용 또한 무시할 수 없어 다른 대안을 찾아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⁵⁾.

또한 지루성피부염 환자들은 각각 다른 진행양상과 조직학적 소견을 보이는데, 이는 지루성피부염의 기저원인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다³⁾. 그러므로 지루성피부염은 질병 그 자체로 보기보다는 다양한 질병의 징후로 볼 수 있으며, 환자의 각기 다른 생리, 병리적 특징을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⁵⁾. 따라서 질병의 원인, 발생부위, 성질과 환자의 신체적 체질 등이 상호 연관된 일련의 특징을 종합, 분

석하여 어떤 성질의 증후인지 판단하고, 이 변증에 근거해 치료방법을 확정하는 ‘辨證施治’의 한의학적인 진단방법은 이러한 접근에 일면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

한의학에서는 白屑風, 面遊風이 지루성피부염과 가장 유사한 병명이다. 白屑風의 발생원인은 風熱血燥, 胃腸濕熱로 보는데⁶⁾, 이러한 八綱辨證, 臟腑辨證의 전통적인 한의학적 변증방법 외에도 人稟臟理의 특징에 따라 체질을 네 가지로 구분하고 같은 증상이라도 체질 및 소증에 따라 처방을 달리하는 사상의학적인 변증방법이 있다.

지루성피부염은 주로 인체 상부에 증상이 나타나고, 홍반과 가려움, 각질, 열감, 진물 등의 증상은 火와 熱의 증상으로 볼 수 있다. 사상의학에서 少陽人是 체질적으로 중심세력이 상부에 있어 陽化되기 쉬우므로 병이 火熱의 성질을 갖기 쉽고 증상변동이 빠른 특징이 있다¹²⁾.

少陽人 荊防導赤散은 <萬病回春>의 導赤散에서 만들어진 처방으로, 導赤散은 心移熱於小腸증을 소변으로 下泄한다. 이제마의 동의수세보원에서 荊防導赤散은 少陽人 병증 중에서 口苦咽乾, 胸脇滿, 或往來寒熱의 少陽傷風證, 傷寒病 頭痛腦脹, 寒熱往來, 耳聾, 胸滿의 表邪 深結之病, 太陽病에서 少陽傷風證으로 轉變한 頭痛, 胸膈煩燥證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처방이다¹⁴⁾.

동의수세보원에는 처방의 적응증이나 임상예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少陽人 荊防導赤散을 처방하여 갱년기증후군¹⁵⁾, 말초성 안면신경마비¹⁶⁾, 특별성 간질¹⁷⁾ 등에 효과를 보았다는 증례보고가 있다. 또한 少陽人 荊防導赤散과 스트레스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 등¹⁸⁾은 흰 쥐를 이용하여 Forced Swimming Test와 구속스트레스 상황에서 少陽人 荊防導赤散이 항우울효과와 혈중 Corticosterone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고, 최¹⁹⁾는 少陽人 荊防導赤散의 항스트레스효과와 진통, 소염, 이뇨 효과를 보고한 바 있다.

이에 저자는 容貌詞氣가 剽銳好勇한 소양인 환자들 중 얼굴과 두피에 홍반 및 발적, 소양감, 건조감, 열감이 나타나는 것을 인체 表部에 鬱熱이 있는 少陽人 脾受寒表寒病으로 보고, 스트레스에 의해 증상이 쉽게 악화되는 환자들에게 荊防導赤散을 처방하였다.

본 증례에서는 환자들의 피부상태 개선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VAS점수의 변화를 2~6주에 한번 확인하였다. VAS는 환자에 의한 주관적인 평가 척도로, 의료진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EASI Score를 활용하였다. EASI Score는 본래 아토피성 피부염에서 증상의 범위와 중증도를 수치화한 것으로, 피부를 얼굴과 목, 체간, 상지, 하지 총 네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에서 아토피성피부염의 대표증상인 홍반(Redness), 피부두께(Thickness), 상처(Scratching), 태선화(Lichenification) 정도를 0점에서 3점까지 점수화 하여 합한 값에 면적 점수를 곱한다. 본 증례를 평가할 때에는 지루성피부염의 주요증상인 홍반이나 발적, 인설이나 각질의 정도를 0점에서 3점까지 점수로 나타냈다. 본 증례의 환자 1, 2는 얼굴에만 증상이 나타나 얼굴만 평가하였고, 환자 3, 4는 얼굴과 체간 2구역을 따로 평가하였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로 사진기록을 남겨두었다.

증례1은 내원당시 얼굴 전체에 열감이 뚜렷하였고, 얼굴 전체의 홍반과 기름기를 동반한 인설, 구진성 농포를 주증상으로 내원하였다. 최초발병일은 4년 전으로 본원에 처음 내원한 2013년 6월 26일까지 4년간 꾸준히 피부과 연고를 사용한 사례이다. 본원치료를 시작함과 동시에 피부과 연고 사용을 중단하여 초기 한 달간 홍반이 넓어지고 소양감이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다가 2달째부터 증상이 꾸준히 경감되었다. 치료 기간은 2013년 6월 26일부터 2013년 11월 22일까지 총 150일로 치료가 종료된 후 2014년 2월 follow up 해본결과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증례2는 얼굴 전체의 홍반과 건조한 각질, 건조감을 주증상으로 내원하였다. 최초 발병 시기는 5개월 전으로 초발 당시 안면부의 구진으로 local 피부과에

서 피부염으로 진단받고 내복약을 꾸준히 복용하여 호전을 보이다가 내성이 생겨 최근 한 달 전부터 효과가 없어 복용을 중단한 사례이다. 육류를 좋아하고 빵, 면류 등의 밀가루식품과 인스턴트를 매일 먹었던 분으로, 치료 중에도 가끔 피자, 초콜릿, 과자 등을 먹고 잠시 증상이 악화되기도 하였으나 점차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다. 치료기간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2014년 2월 11일까지 총 104일로 follow up 해본결과 7개월이 지난 2014년 9월에도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증례3은 내원당시 얼굴과 목의 홍반과 각질, 진물이 주요 증상이었는데, 밤중에 소양감이 특히 심해서 수면상태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 최초 발병시기인 2012년 10월부터 두 달동안 피부과 연고를 사용하다 중단한 뒤 심한 반동현상을 겪었고, 그 후로 다른 한 의원에서 1년간 치료 중 호전을 보이다가 다시 악화되던 중에 2014년 2월 17일 본원에 처음 내원하였다. 그 후로 약 40일 가까이 환부가 더 넓어져 얼굴과 목 전체, 귀, 겨드랑이, 쇄골 하부까지 홍반과 각질이 나타나고 진물도 심해졌다. 2014년 4월 초부터 증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으며 식이관리와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해 그 후로는 증상의 악화 없이 꾸준한 호전을 보였다. 치료기간은 2014년 2월 24일부터 2014년 7월 19일까지 총 153일로 다음해인 2015년 1월 follow up 해본결과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증례4는 4년 전 발병한 지루성피부염의 남성 환자로, 안면부와 흉부에 홍반과 인설, 구진성의 농포성 여드름을 주요 증상으로 2014년 6월 2일 처음 내원하였다. 특별한 과거력이나 가족력은 없었지만 주 3-4회, 소주를 2-3병씩 마시는 잦은 음주 습관이 있었다. 치료기간은 2014년 6월 2일부터 2014년 10월 7일까지 총 128일의 치료 기간 중 내원주기는 약 2주로 다른 환자들 보다 긴 편이었지만, 특별한 증상의 증감 없이 지속적으로 호전되었으며, 다음해인 2015년 1월 follow up 해본결과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상 4례의 치험례 모두 초기 4-6주 무렵부터 증

상이 경감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총 3~5개월간의 치료로 홍반과 발적, 인설, 농포 등의 병변과 소양감, 건조감 등 자각증상이 거의 소실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본보고서는 임상적 의미를 가질 만큼 증례수가 충분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증례만으로 지루성피부염을 가진 少陽人 脾受寒表寒病 結胸證으로 진단한 환자에게 荊防導赤散이 우수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또한 일개체질, 일개변증의 환자에 대한 증례만을 모은 것으로 이 증례를 계기로 향후 각 체질별, 변증별로 환자를 분류하고 처방하여 효과를 입증하는 대규모의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V. 결 론

1. 안면부 및 흉부의 홍반 및 발적, 인설, 소양감, 건조감을 주증상으로 하는 지루성피부염 환자 4례에 대해 사상의학적으로 진단, 치료한 치험례이다.
2. 환자의 容貌詞氣가 剽銳好勇한 少陽人 중 피부증상과 병증의 양상이 脾受寒表寒病 結胸證으로 진단한 환자에게 소양인 荊防導赤散을 처방하고 침 치료와 식이 및 생활 관리를 병행하였다.
3. 4례 모두 3개월에서 5개월의 치료기간 동안 지루성피부염의 제반증상이 호전되었다.

References

1. Lee JW. The Root of Ambulatory Care, 1st ed. Seoul:Koonja, 2006:456-9.
2. Kang YH. Atlas of Skin Disease, 2nd ed. Seoul:Hanmi, 2008:122-3.
3. Lee IH, Lee HT, Kwon OY. Seven Cases of Seborrheic Dermatitis Patients Treated with Sihochunggan-tang gagambang. J Korean Med

-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15;28(2):130-42.
4. Ahn SG. Common Skin Disease. 1st ed. Seoul:Pacific. 2005:117-23.
 5. Cha JH, Kim YB, Nam HJ, Kim HJ, Park OW, Kim KS. Recent Advances in the Seborrhic Dermatitis.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06;19(3):118-33.
 6. Common Editing Commission. Text of Traditional Korean Dermatology & Surgery. 1st ed. Busan:Sunwoo. 2007:362-5.
 7. Kim MG, Hwang MJ. Three Cases of Seborrhic Dermatitis Treated by Hwangryunhaedok-tang gagambang.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14;27(1):140-8.
 8. Bae HJ, Jo GW, Choi YJ, Heo ES, Hwang CY. A Clinical Report of Seborrhic Dermatitis.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14;27(4):200-8.
 9. Hwang-bo M, Lim JH, Hwang SI, Jee SY, Lee SK. A Clinical Report Seborrhic Dermatitis.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05;18(3):142-7.
 10. Kim KB, Kim TW, Choi SH. Four Cases of Seborrhic Dermatitis Treated by Fermented Yungyo Keumeunhwa Extract External Treatment Liquid.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13;26(4):101-10.
 11. Hong CH. Two Cases of Seborrheic Dermatitis Treated by Hwangryunhaedok-tang Pharmacopuncture Therapy.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12;25(2):68-75.
 12. Song IB.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nd ed. Seoul:Jipmoondang. 2008:60,201,253.
 13. Gupta AK, Nicol KA. Ciclopirox 1% shampoo for the treatment of seborrhic dermatitis. Int J Dermatol, 2006;45(1):66-9.
 14. Park IS. Dongeuisasangyohyeol. 1st ed. Seoul:Sonamu. 1990:59-60.
 15. Jeong HY, Lee SJ, Cho HW, Lim EH. 2 Case Study Reportings on Efficiency Using Hyeongbangdojeok-san of a Soyangin Patient Diagnosed with Climacteric Syndrome. The Journal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014;26(3):318-27.
 16. Lee SJ, Cho HW, Jeong HY, Lim EC. 2 Case Study Reportings Using Hyeongbangdojok-san of a Soyangin Patient Diagnosed with Peripheral Facial Palsy. The Journal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014;26(4):389-99.
 17. Song IS, Lee JL, Shin JN. The Clinical Study on 1 Case of Patient with Idiopathic Epilepsy. The Journal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03;17(2):27-35.
 18. Lee SY, Choi AR, Ha JH, Lee JH, Kim PJ, Goo DM.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Anti-stress Effect by Soyangin Hyeongbangdojeok-san and Yanggyeoksanhwa-tang. The Journal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008;20(3):151-63.
 19. Choi BI. Experimental Study on Efficacy of Soyangin's Hyeongbangdojok-san. The Journal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1990;2(1):167-76.